

## 농촌에서 진행된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

김 성 리\*\*

### [초 록]

본 연구는 농촌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용성을 분석한 글이다.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인문학 열풍이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농촌 지역민은 인문학을 접하는 게 어려운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삶의 학문인 인문학이 새로운 차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6061651).

이 논문은 2020년 11월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글이다.

논문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닌 효용성으로 주제를 정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주제어: 농촌,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용성, 지역의 역사, 공간과 장소, 노인 세대, 인문학의 한계

Farming Area, Utility of the Humanities Program, Local History, Space and Place, Elderly Generation, Humanities Limitations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더 이상 삶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으나, 한 지역에서만 진행되었으며, 지역민 전체가 아니라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다.

2장에서는 농촌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인식 변화를 고찰했다.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지역민들이 인문학 강좌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 주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지역이라는 모호한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하는 변화에서 인문학의 효용성을 찾았다. 3장에서는 농촌 안에서도 상대적인 소외자인 노인들에게 시 낭송을 매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노인들이 읽기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시와 리듬이 있는 낭송을 진행하면서 노인 인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COVID-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부 농촌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인문학 소외지역에서 인문학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인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실천학으로서의 인문학적 지평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문명의 변화 앞에서 노인 세대처럼 상대적인 인문학 소외계층에 나타나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다.

## 1. 시작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문학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인문학의 전파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도시 위주로 진행되며, 농촌 지역에서 인문학은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

도 농업이 주요 경제활동이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없으며 인문학 관련 행사가 간혹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에서도 작은 인문 활동이 있으나 귀촌한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정착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민들에게는 인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

농촌 지역민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인문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하기는 매우 어렵다. 농촌에서 인문학은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고, 인문학을 접하려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시와 달리 특별한 노력을 일부러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은 농촌과 같은 지역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인문학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 인문학은 “진정한 자아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가 되는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질을 형성”<sup>1)</sup>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인문학이 있고, 삶 자체가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인문학은 큰 힘을 갖는다.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네 삶의 모습이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삶의 학문인 인문학은 이제 상대적으로 인문학으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 인문학은 공유할 때 가치와 의미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환경 자체가 인문학과 거리가 먼 농촌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들의 삶은 희망이나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들은 늘 무언

1) 정창우·손경원·박영하(2015),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46,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 25.

가를 선택하거나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농촌에서의 삶은 늘 노동의 연속이며,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자연 현상에 의존해야 하므로 도시민들과는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실에서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양성하고, 정신적인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농촌의 현실에서 인문학은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삶의 학문인 인문학이 새로운 차별을 외면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더 이상 삶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농촌에서 진행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돌아보고 농촌 지역 인문학의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인문학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인문학을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 대학의 인문학적 지식과 지자체의 행정력을 결합한 인문도시지원사업<sup>2)</sup>’에 의거하여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인문학을 대중화하고자 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과 관련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이 개인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분야가 아니며, 결과 보고도 연구가 아닌 행사 진행에 대한 보고 형식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인문학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방식이나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나오기 어렵다. 또 사업단끼리의 교류가 거의 없어 인문도시지원사업에 대한 정량분석이나 정성분석에 의한 지표가 나오기 어려운 것

2)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표한 인문학대중화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 및 대학부설기관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협력을 지원하여 지역 인문자산 발굴 및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인문학 진흥을 도모
2.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와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행복 구현.

도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행정 실무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정희와 권기현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행정 실무를 맡았던 연구자로서 인문도시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설계이론, 로직모형,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다.<sup>3)</sup>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업단의 연구 중 채영희<sup>4)</sup>는 ‘시민의사소통 교육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민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했으나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결과 없이 이론적인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원과 윤영득<sup>5)</sup>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연구단의 간략한 사업 개요에 나타나는 사업 현황을 대상으로 각 사업단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했으나, 연구 계획서를 전체가 아닌 개요만으로 제한하여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허정애, 김경옥, 강연호<sup>6)</sup>는 인문도시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인문도시지원사업 대상 지역이 도시이며, 내용이나 진행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3) 이정희·권기현(2018),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책설계·리더십·자원·네트워크 요인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3), 국정관리연구학회.

4) 채영희(2018), 「인문도시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 의사소통 교육 가능성 모색」,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6, 한국사고와표현학회, p. 53.

5) 김지원·윤영득(2017),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연구재단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7(2), 한국문화산업학회.

6) 허정애(2014), 「“근대路 열린 인문학”: 기억과 재생의 인문도시 대구 중구」, 『동서인문』 2,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강연호(2016),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논문집』 17(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경옥(2017), 「인문도시목포를 통해 본 대학의 기능」, 『인문사회 21』 8(3), 아시아문화학술원.

기보다는 내용 소개 정도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와 결을 같이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클레멘트 코스’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소외되어 인문학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인 『희망의 인문학』에서 얼 쇼리스는 “인문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로 이어지는 ‘공적 세계’로 이끌어”<sup>7)</sup>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양은아<sup>8)</sup>는 성인들이 인문학 교육을 받고 변화하는 데에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교육한 연구들도 있으나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찾지 못했다. 다만 ‘로컬’과 ‘로컬리티’<sup>9)</sup>를 주제로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으나 주로 ‘로컬’의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이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천적인 인문학활동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sup>10)</sup> 본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나 본 연구처럼 실천적인 인

7) 얼 쇼리스(2006), 고병현·이병곤·임정아 역,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p. 24.

8) 양은아(2009), 「대중인문학교실 참여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경험적 변화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4), 한국평생교육학회.

9)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HK 연구주제로 다년간 연구 중이다.

10) 지역을 학계에서는 ‘로컬’, ‘로컬리티’로 표현하며 중앙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래어 표기를 벗어나 지역으로 표현한다. 삶의 터라는 개념으로 보면 중앙과 지역 모두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기 때문이다.

“로컬, 로컬리티란 영어권 언어로서, 지역, 지방, 장소란 용어와 맞먹는 것이다. 그런데 왜 로컬, 로컬리티인가?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용어가 본질적 함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적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식 경계에는 서울이나 중앙의 가치에 무의식적으로 향해 있어서 이를 탈피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p. 48), “대체로 ‘로컬’이란 지방, 국부(국소), 지역, 시골, 촌스러움(브라이언 우드와 라

문학을 진행하고 결과를 논한 연구에서 김수정은 인문교육(글쓰기)을 통하여 노인들이 ‘자기돌봄’과 ‘치유’를 경험했음을 서술한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적 이론을 넘어 농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진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분석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농촌 지역 인문학 대중화의 가능성을 인문학 강좌와 인문탐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진행된 시 낭송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분석하여 노년기 인문학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성찰할 것이다.

## 2. 인문학 대중화의 방법과 가능성: 삶 속의 인문학으로

이 장에서는 농촌 지역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과 연관된 인문학 주제를 기획하고 진행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다. 인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농촌 지역민들에게 이론 중심의 인문학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sup>12)</sup> 농촌의 현실에서 인문학 이론은 실제적인 생활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삶의 가치와 인간다움의 의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일이 인문학

---

이언 켈리에 의해 쓰인 희극 서적 시리즈를 미루어 봄)을 함축하는데, ‘로컬리티’는 ‘로컬’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p. 51), 이명수(2010),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인문학적 공간—로컬리티토로지 도달에 관한 동양학적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1) 김수정(2021), 「생애사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돌봄’과 ‘이야기정체성’—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생애사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8(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2) “로컬의 현실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지역민이 지닌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이론이 부합되지 못한다.”(이상봉(2009),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의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 60).

적 수행 영역”<sup>13)</sup>이므로 일반적인 인문학 프로그램보다는 그 지역의 실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 2.1. 인문강좌: 지역의 역사문화 알기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공부의 근원인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 알게 되는 것이 공부라면, 공부는 우리들 본성 중 하나인 셈이다.<sup>14)</sup> 앞에 선 사람이 지시적으로 말하고 일반 대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기쁘고 즐겁고 기꺼이 참여하는 과정이다. 인문학적 사전 지식이 없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문학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며, 일상에 스며들 것이다. 또 개인의 문화적 활동은 다양성과 함께 개인성도 존중해주어야 하므로 일방향성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함께한다는 공동의식이 중요하다.<sup>15)</sup>

농촌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낮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 농촌에서는 노인 세대도 낮에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농사는 한 겨울 외는 끊임없는 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문학 강좌를 3년 동안 매월 1회, 정해진 요일의 저녁 시간대에 진행했다. 농사는 해가 지면 할 수 없으므로 지역민들의 시간활용이 비교적 쉬운 저녁 시간에 강좌를 진행하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인문학 강좌가 지역 내에 알려지는 간접 홍보 효과를 노렸다.

---

13) 문제원 외(2017),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p. 3.

14) “공부는 우리의 본성이다. 따라서 공부는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조윤제(2021),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21세기 북스, p. 11).

15) 김상근(2013), 『아레테의 힘,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멘토, pp. 18-20.



당초의 인문학 강좌는 문학, 역사, 문화, 예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들도 3년 동안 동일한 인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연 2회씩 3년 동안 총 6회의 강좌를 진행하며, 내용에 연속성을 지니도록 했다. 인문학 교육과 인문학 강좌를 접한 경험이 없는 지역민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려면 강의 주제가 어렵지 않아야 하고, 강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인문학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문학 대중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표 1〉 인문학 강좌: 2018년 7월~2019년 6월

분야	주제	
문학	한시를 통한 옛 시인과의 대화	한시로 풀어보는 삶과 문학
역사	산청의 선사시대 이야기	산청의 고대사 이야기
문화	프랑스 인문도시 산책: 파리	프랑스 인문도시 산책: 프로방스
예술	일상 속의 미술	리틀보이 12725 감독과의 대화
기타	(산청)한의학과 인문	약초 이야기
답사	경상대학교박물관	진주국립박물관

문학과 예술 분야의 강의 주제는 ‘어떻게 사느냐’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동양고전으로 보는 ‘삶과 죽음’, ‘효의 문제’ 등을 문학 분야 강좌에서 3년 동안 다루었다면, 예술 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의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미적 요소들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며 일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했다. 문화 분야의 강의는 이론적 요소들을 간접적으로 다루며, 해당 농촌 지역과 유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다른 도시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러한 강의들의 지향점은 지역민들이 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세상을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간접 경험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을 자유롭게 떠나 직접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농촌 지역민들에게는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알면서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을 고전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무심하게 여기던 우리들의 일상이 문화이고 예술임을 안다면, 자신의 삶과 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틀림’보다 ‘다름’을 알게 되는 것도 인문학의 길이다. 많이 안다고 더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움을 경험함으로써 나와 다른 존재, 나의 삶과 다른 삶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온 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된다면 삶은 스스로 변하고 또 변해갈 것이다. 우리들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삶은 변화의 과정인데, 살면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가 내면에서 시작하여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나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삶의 모습은 내면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역사 분야의 강의에서는 대상 지역의 고대사를 2회 진행했다.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며 지역의 고대사를 강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민과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기 위해서였다.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아는 것과 같다. 먼 과거로부터 현재가 있고, 미래는 현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곳의 역사를 알게 되면 추상적이었던 공간이 나의 장소가 된다. “경험의 측면에서 처음에는 별 특징이 없던 공간은 우리가 그곳을 다

16) “우리 모두는 불완전성, 비실체성,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이라는 에는 듯한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불편을 마술처럼 해결하는 것을 갈망한다.”(마크 앵스타인(2006), 전현수·김성철 역, 『붓다의 심리학—명상의 정신치료적 적용』, 학지사, p. 67)

잘 알게 되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장소가<sup>17)</sup>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강의는 내가 사는 곳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농촌은 단순한 삶의 터를 넘어 지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나의 장소, 우리들의 장소로 변화한다.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더불어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지역이나 지방의 특유의 장소 가치, 문화적 고유성을 외면하고, 여기에 불순한 위계적 인식, 인식의 경계가 있어서 시골, 촌티, 지역성으로 평가 절하되기도 하<sup>18)</sup>는 현실 속에서 농촌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자신들이 세계-내-존재임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역사란 장기간에 걸쳐 우연히 형성된 인간의 정신적 환경을 내포하므로<sup>19)</sup>,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는 곧 자신의 정신적 근원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역사 분야 강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나타나며, 강의에 참여했던 지역민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확대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 분야의 강의를 끝나면 무기명으로 희망사항을 적는 곳에 다음의 내용과 같은 의견이 다수 있었다.

“오래된 역사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 저런 역사가 있었다니 생각이 달라진다.” (남/63세)

“옛날에 친구들과 올라가서 놀고는 했는데, 그곳이 가야왕의 무덤이라니, 너무 놀랐다.” (남/57세)

17) 이-푸 투안(2020),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p. 67.

18) 이명수(2010), p. 49.

19) 박선아(2009), 「자서전, 역사소설, 미시사, 그 경계를 넘어서」, 『불어불문학 연구』 80, 한국불어불문학회, p. 208.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연 12회의 인문학 강좌 중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강좌가 2년차부터 4회 연속으로 확대되었다. 2년 동안은 지역에 관한 역사문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마지막 해는 한국의 역사문화 전반으로 강의 주제도 확대되었다. 대신 지역의 현재에 대한 기타 분야 강의는 역사문화 분야로 포함시켰다. 강화된 역사문화 분야 강좌 내용과 연계하여 연 1회는 박물관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직접 보면서 학예연구사의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지역의 역사문화 강좌를 통해 지역민들은 어떤 지점에서 통일된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왜 우리 지역에서는 없었느냐?’라고 지역 내에 던지는 반성적인 질문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굴된 과거의 유물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가야 만날 수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지역민들은 공간을 비로소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자신들과 관련 없다고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았던 먼 과거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오래된 미래로 다가온 것이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랜 시간이 더 지나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 역사 분야 인문학 강좌: 2018년 7월~2021년 5월

	2018.07~2019.06	2019.07~2020.06	2020.07~2021.05
1	산청의 선사시대 이야기	가야왕의 칼	고대국가 등장과 도성
2	산청의 고대사 이야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야	고인돌과 토기 제작의 실재
3		산청지역 유물: 토기	순장의 모든 것
4		산청의 청동기 시대	한국과 산청의 고지도 이야기

그럼에도 같은 지역 안에서 여러 세대, 여러 장소, 다양한 계층(토착 지역민, 귀촌 지역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여러 기억 등이 만나 하나의 지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처럼 전문가 집단의 지식이 지역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터인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삶 속의 인문학으로 변화하는 것은 인문학을 대중적인 방법으로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결과이다. 인문학은 어렵고 ‘나의 삶’과 연관이 없다는 인식의 벽을 허물고,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은 서로 유대감을 형성해나갔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같은 지역에서 살지만 다른 개성을 지닌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형성되고, “관용은 자신의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계기”<sup>20)</sup>를 만들어준다. 이때 “역사는 보편사이지만, 역사적 삶은 인간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직관하는 원리”<sup>21)</sup>로 작동한다. 또 인문학은 개인성도 강하지만, 사회적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sup>22)</sup>

인문학 강좌가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는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인문학 강좌가 지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참여자의 현황을 들 수 있다. 매년 한 해의 인문학 강좌가 진행되면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높은 만족도는 비교 대상이 없는 현실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

20) 이운정(2001), 「문화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청소년 문화포럼』 4, 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p. 149.

21) 마르틴 하이데거(2020), 김재철 옮김, 『빌헬름 딜타이의 탐구작업과 역사적 세계관』, 누멘, p. 11.

22) 최신한(2003), 『슬라이어마허—감동과 대화의 사상가』, 살림, p. 107.

러나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일부 참여자는 직장을 마친 후인 늦은 저녁 시간에 2~3시간씩 진행되는 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생각한다면,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지역민의 수가 어느 정도는 인문강좌의 효용성에 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표 3〉 인문학 강좌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조사시점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평균
만족도	93.6%	98%	98.8%	96.8%

〈표 4〉 인문학 강좌 참여자 현황, ( )안은 월 평균 참여자 수

집계시점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연 평균
참여자 수	389명(32)	324(27)	294명(29)	335명(31명)

〈표 5〉 월별 인문학 강좌 참여자 수의 변화

집계시점	2018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5월	2020년 8월
참여자 수	18명	34명	52명	32명

인구수 34,000여 명,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농촌 지역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하는 인문강좌에 매회 30여 명의 자율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는 사는 지역이 농촌일 뿐, 읍에 대한 호기심은 대도시와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문강좌가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힘들게 진행되었다. <표 4>에서 2020년과 2021년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인문강좌가 없었던 관계로 전체 참여자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2개월을 쉬고 다시 진행된 2020년 5월의 대면 강좌에 52명의 지역민이 참가하여 해당 농촌 지역에 인문학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줬다. 2020년 12월부터는 코로나 19의 재확산

으로 대면 강좌에서 온라인 강좌로 진행 방식을 변경했다. 비대면 강좌에 접속이 어려운 노년층의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전체 참여자 수는 감소했지만, 비대면 강좌의 활성화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문강좌는 꾸준히 열리고 있다.

## 2.2. 인문탐사: 지역민이 찾는 지역 정체성

인문학 강좌가 지속되고, 지역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낯섦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의 인문자산에 대한 탐구가 필요했다.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지역민들 중 지원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신문화를 찾는 인문탐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인문탐사 프로그램은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토론, 글쓰기, 세미나, 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지역민의 힘으로 지역의 정신문화를 찾아 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보자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한 후에 대상 장소를 찾아가서 탐색하고, 그 결과를 글쓰기로 공유하며 세미나에서 수정·보완하는 형식을 지향했다.

인문탐사 프로그램은 강의, 세미나, 지역 답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아울러 책을 함께 읽었다. 지역의 인문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책이 선정되면 읽고 토론하며 인문역량을 강화시켜 나갔다. 책으로부터 습득한 이론을 참고하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지역에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곳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논의를 거쳐 답사 장소를 선정했다.

장소가 선정되면 그 장소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공유한 후에 장소 답사를 진행했다. 장소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고, 과거의 생활상이 현재로 소환되어 미래를 생각하는 모티프로 작

용한다.<sup>23)</sup> 답사가 끝나면 수집한 자료와 답사에서 찾은 새로운 자료들을 놓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이 단계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자료와 답사의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고, 다음 세미나에서 글을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에 글을 수정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현재의 삶터에서 바라보는 실천적인 지역 인문학의 성격으로 변화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지역의 문화자원이 브랜드화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이야기”<sup>24)</sup>여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은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형성하고 도야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형성의 요소로 파악되므로, 새로운 문화형성은 국가의 일이라기보다 자유로운 교제의 조건이”<sup>25)</sup>이 되는 지역 인문학으로 스토리텔링된다. “각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sup>26)</sup>하는 것이 지역에 인문학을 실천하는 방법 중의 하나임은 분명해졌다.

“로컬리티 인문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장소(터)’와 ‘인간(삶)’ 그리고 이들 간의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진 로컬 현장의 현실문제에서 출발”<sup>27)</sup>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정신을 사회화하는 실천학으로서의 역할”<sup>28)</sup>을 한다.

---

23) 제프 말파스(2014),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p. 184.

24) 채영희(2018), p. 53.

25) 최신한(2003), p. 108.

26) 서우석(2014), 「도시인문학의 등장—학문적 담론과 실천」, 『도시인문학연구』 6(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p. 39.

27) 이상봉(2009), p. 46.

28) 이상봉(2009), p. 61.



지역민이 지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인문 역사를 알린다면, 지역민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지역에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지역민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인문학이 지역의 정신문화를 더 깊고 넓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전망은 인문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들의 후기에서도 볼 수 있다.

“내가 사는 곳곳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가고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역사를 알게 되면서 ○○(지역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씩 자랐습니다.” (여/ 46세)

“평생을 이 지역에 살면서도 지역에 대한 지리, 문화, 역사 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함께한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63세)

“4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아는 것 없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던 저에게 새장 밖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문화자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지난 시간

---

29) 최옥채(2004),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학현사, pp. 7-10.

30) 도시 정체성 확보는 지방자치 시대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잠재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호(1996), 「City Identity를 통한 지방 정부의 이미지 상승에 관한 연구」(『지역개발 연구』 4,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를 참조.  
지역 정체성을 지역민이 찾는 3년 동안의 여정은 2021년 6월 25일에 책으로 발간되었다(김성리 외, 『산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알렙).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책으로는 안외순 외(2021), 『당진학』(모시는 사람들)을 참조.

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여/55세)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은 지역의 역사를 만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관심이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이어지는 순환은 인문학의 선한 힘이다. 이러한 인문적 힘은 스스로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창조하는 주체적인 지역민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sup>31)</sup>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공유에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학문 실천은 항상 ‘이행’ 가운데 있다는 점이다.<sup>32)</sup> “인문학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 지식, 질서, 진리, 권력을 벗겨내 그 이면”<sup>33)</sup>을 문제 삼을 수 있을 때 생명을 가지며, 그 생명력으로 우리들 삶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이 인문학에 관심을 표명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면 농촌 지역의 인문학은 계속될 것이다.

### 3. 노년기 인문학의 가능성과 한계

어느 곳이나 소외된 삶이 있다. 농촌에서의 소외된 삶은 도시보다 갈 곳이 없고 사회문화적 돌봄도 약하다. 농촌에서 인문학이 정착하려면 일반 지역민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외된 이들도 함께해야 한다. 인문은 사람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sup>34)</sup> 문제는 농촌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상

---

31) “인문학은 나를 성찰하되, 그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관계 속의 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유범상(2014), 『필링의 인문학』, 논형, p. 15).

32) 최신한(2003), p. 81.

33) 유범상(2014), p. 13.

34) 얼 쇼리스(2010), pp. 120-138 참고. 클레멘트 코스를 시작한 얼 쇼리스에 따라

대로 인문학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가 외부의 사물이나 일들을 경험할 때, 사람에 따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경험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sup>35)</sup> 이 말은 그동안 살아온 상황이 다르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농촌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상황은 도시와 다르다. 노인들은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상실되었으나 그 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활하지 못한 교통수단, 열악한 문화환경 등은 농촌의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TV를 보거나 화투를 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로 찾아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시 낭송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년은 새로운 삶에 진입하는 시작의 의미도 있고, 성숙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삶에서 체득한 인생의 지혜를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sup>36)</sup> 하지만 현실은 노인을 그렇게 보지 않으며,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노년에 인문학은 더욱 필요하다.

시를 선택한 이유는 시가 장르적 특성 중 하나인 ‘짧은 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에는 시인의 삶이 농축되어 있고, 리듬감이 있어서 노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시들 중에서도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반영하며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시들을 가려 뽑았다.<sup>37)</sup> 백석의 시

---

면, 피부색, 학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나누어지는 현실의 계층을 떠나 모두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는 가상 폴리스(마음속에 존재하는 국가)에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이 실제 사회에서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

35) 조광제(2008), 『의식의 85가지 얼굴』, 글항아리, p. 225.

36) 데이비드 스노든(2011), 유은실 역, 『우아한 노년』, 사이언스북스, p. 21.

37) 대표적인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백석의 시 : 여우난골죽, 오리 망아지 토끼, 오리, 가즈랑집, 2. 나태주의 시 : 풀꽃, 행복, 3. 도종환의 시 : 바람이 오면> 등.

는 노인들이 삶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 나태주의 시들은 사랑스럽지 않은 꽃이 없듯이 모든 사람은 귀하다는 소재로 활용했다. 농촌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농업에 종사했던 이들에게 시를 쓰거나 읽으라고 하면 어려웠겠지만, 시 낭송가가 방문하여 읽어주는 짧은 시를 따라 낭송하는 시간은 낯설면서도 음악성이 함께 하면서 부담 없이 받아들여졌다.

시 낭송가의 시 낭송을 듣고 따라서 직접 시를 낭송하며 시의 내용을 천천히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시간이 반복되었다. 시를 매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시점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러한 행위는 예전에 마을회관에서 TV를 보며,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같은 일상의 소소한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하던 때와는 다르다.<sup>38)</sup> 그러나 이 일들은 처음부터 노인 세대가 스스로 만든 편견이라는 벽을 넘어야 했다.

“이 나이까지 그런 거(시, 인문학) 몰라도 잘 살았다. 이제 그거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 (남/ 79세)

“이제 와서 할 말이 뭐가 있다고....., 나이 들어 모이는 거 안 좋다.” (여/82세)

“외워라, 쓰라 하면 안 할 거다.” (여/77세)

“늙으면 빨리 죽는 거를 가르쳐줘야지, 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걸 하라고 하노.” (여/88세)

---

38)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나’는 그것이 실수와 오류였음을 안다. 이러한 ‘나’가 바로 ‘선형적 주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형적 주체는 경험적 주체보다 완전하다.”(최상욱(2019), 『하이데거 vs 레비나스』, 세창출판사, p. 67).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세상을 배우고 알아간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 온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sup>39)</sup> 자신의 지나온 삶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현재 잉여적인 삶을 산다는 노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위의 연술에서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한 번 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어 ‘노인들의 시 낭송’ 프로그램은 시작할 수 있었다. 노인 대상의 인문 프로그램은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시의 내용을 토대로 떠오르는 ‘나와 같은 세대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마을에서 오래 살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시인의 시를 듣고 떠오르는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감정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리고 깊은 삶의 연륜을 쌓은 노인들은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했다.<sup>40)</sup> 의미 있는 “경험은 삶의 지평을 스스로 확장”<sup>41)</sup>하면서 개인의 내적 발전과 더불어 집단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가 치유력을 지니는 것은 삶의 경험에 의한 의미가 말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역사에서 소외된 개인

39)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관여적으로 관계 맺음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고 본다. 즉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특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주체가 객체에 대해 거리를 둔 채 그것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지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다.”(에덤 샌델(2015), 이재석 역, 『편견이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p. 113).

40)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사상을 교류하고 예술의 형상을 통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미래의 모든 사람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레프 톨스토이(2015), 유상우 역, 『톨스토이 인생론』, 홍신문화사, p. 447).

41) 빌헬름 딜타이, 송석량 역(2009), 『정신과학 입문』, 지만지, p. 43.

의 경험은 “인간의 심층적 무의식의 관계성”<sup>42)</sup>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층적인 무의식은 존재성을 잃지 않으려는 자아에 의해 구술로 나타난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문제를 발생시킨 세계와 내면 의식을 통합하여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sup>43)</sup>가 노인들 사이에서 작용했다. 시를 ‘쓸데없는’, 인문 프로그램은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프로그램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낭송하는 단계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시를 필사하고, 그 이후에는 글쓰기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계획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중단되었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는 비대면 진행이 불가능했다. 간혹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노인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지역 전체에서 소수이다.

생활반경이 제한되어 있으며,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농촌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몸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 노년기 마음의 건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유대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에 노년기에 맞춘 인문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44)</sup> 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 노인들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회관은 폐쇄되고,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면서 노인들은 외부인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소외시켜 나갔다.

유일한 놀이 공간이던 마을회관이 문을 닫고, 마스크를 쓴 채 해야 하는 대화는 노인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인문학이 필

42) 윌리엄 제임스(2005),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p. 37.

43) 김성리(2013), 「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의사학』 22(2), 대한의사학회, p. 395.

44) 루이즈 애런슨, 최가영 역(2020), 『나이듦에 관하여』, being, pp. 628-629.

요한 상황에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노인들이 “보이는 사회 현상들은 대체로 우리의 분석을 넘어서는 거대한 무의식적 작용의 결과인 것”<sup>45)</sup> 같았다.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19 감염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 예컨대 거리 두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것들은 노인들도 잘 적응하지만, 비대면 화상 강의 등과 같이 기기를 활용해야 가능한 상황은 마을에 고립된 노인들을 시 낭송 프로그램 이전으로 회귀시켰다.<sup>46)</sup>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동시도 쓰고 그랬다.”(여/82세)

“보고 베껴 쓰는 거야 할 수 있지.”(여/77세)

인문학에 대한 사전 기초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인문학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오던 노인들은 감염병 앞에서 생존 모드로 돌입했다. 기계문명의 도움 없이는 인문학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멈췄다.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사회문화적 변동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듣고 보는 현실이 그들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비실재적 현실로 다가올 때, 실제적인 삶은 늘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sup>47)</sup> 그래서 인문학이 있어야 함에도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문학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들이 시를 듣고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서로 보듬어 주었듯이

45) 귀스타르 르봉(1895), 민문홍 역(2014), 『군중심리학』, 책세상, p. 25.

46) 귀스타르 르봉(1895), p. 42. 저자는 문명의 변화에 앞서 나타나는 커다란 사회적 변동들에 의해 의식적 개성이 사라지고 감정 및 사고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군중 사이에 나타난다고 서술한다.

47) 한나 아렌트(2014), 이진우·태종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p. 103.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약자들에게 인문학은 삶을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인문학은 그들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인문학을 함께 하고자 했던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인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답은 계속 찾아야 한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변화도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폭력을 완화하고 삶을 따뜻하게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인문학일 것이다. 인문학은 이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4. 풀어야 할 것들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먹고 사는 것과 연관이 없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학문에 가깝다. 그런 농촌에서 인문학이 쓸모 있는 그 무엇으로 전환한 계기는 지역의 역사를 지역민들에게 보여준 역사문화 강좌였다. 역사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함께 했던 대중들의 시간을 담고 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지나간 시간들을 처음 접했을 때 지역민들은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호기심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으로 변모했다. 문학, 문화, 예술 등의 강좌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간접 경험의 기쁨을 주었다면, 지역의 역사는 지역민들의 내적 성찰을 가져왔다. 덕분에 코로나 19 상황과 비대면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인문학 강좌는 계속될 수 있었다.

지역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삶 속에서 느끼게 하는 인문학 강의는 농촌 지역에서 인문학을 대중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내가 사는 곳, 나의 일상이 영위되는 곳의 근원을 아는 것, 즉 인문학



이 생활 속으로 들어갈 때 인문학은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세계 내 존재에서 세계는 삶의 환경”<sup>48)</sup>이므로 지역민이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를 물리적 공간이나 위치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인지할 때 삶의 터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의 환경을 지역민의 일상에 맞추었고, 프로그램의 시간을 일관성 있게 지키면서, 지역민들이 그들의 삶을 탐구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에 함께 했다.

농촌 내에서도 상대적인 약자인 노인들에게 인문학은 관심 밖의 학문이다. 인문학이 없어도 일상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를 만나고 시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인문학에 조금씩 문을 열어 가던 농촌의 노인들에게 코로나 19는 재난처럼 다가왔다.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어갔지만, 인터넷을 모르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갔다. 사회를 바꾸는 주체가 사람이므로 사회를 논하고 구조를 논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문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인들이 시 낭송을 하며 시를 매개로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즈음 느닷없이 나타난 감염병은 이 모든 것들을 무화시켰다.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평생을 자연에 의존하여 살아온 농촌의 노인 세대에서 인문학은 일반 지역민들과 달리 코로나 19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앞에서 인문학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사람이 없는 인문학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인문학이 가장 필요한 지점에서 첨단 기계의 도움 없이 인문학만으로는 노인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농촌의 노인들에게 인문학은 너무나 간단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없는 그 무엇으로 다시 회귀했다. 즉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문학은 효용성을 찾기 어려웠다.

---

48) 애덤 샌델(2015), pp. 114-115.

여기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인문학이 가장 필요한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미처 시행하지 못했지만, 방역 규정을 역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며 야외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이해와 노인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그리고 기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 노인들에게 비대면 인문학 교육 방법을 전수하는 것보다 익숙한 생활환경 안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거리를 두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인문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인문학은 삶을 직접 변화시키지 않으며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도 않지만, 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삶이며 그 흔적이 인문이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묻고 답을 찾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그래서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문학을 만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인문학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인문학이 지역민의 인식을 넓히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에서 인문학의 효용성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감염병이라는 문명의 부정적인 변화 앞에서는 효용성이 상실되는 것도 보았다. 어쩌면 인문학은 거대한 전회의 물결 앞에 놓였는지 모른다.

이 연구는 농촌 중에서도 한 지역과 일부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인문학 소외지역에서 인문학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천학으로서의 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미를 두고 싶다. 더불어 노인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의 실패를 거울삼아 계속 나타날 문명의 변화 앞에서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논 저】

- 강연호(2016),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 소논문집』 17(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귀스타르 르봉(2014), 민문홍 역, 『군중심리학』, 책세상.
- 김경옥(2017), 「‘인문도시목포’를 통해 본 대학의 기능」, 『인문사회 21』 8(3), 아시아문화학술원.
- 김상근(2013), 『아레테의 힘,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멘토.
- 김성리(2013), 「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의사학』 22(2), 대한의사학회, p. 395.
- \_\_\_\_\_ (2021), 『산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알렘.
- 김수정(2021), 「생애사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돌봄’과 ‘이야기정체성’—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생애사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8(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지원·윤영득(2017),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연구재단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7(2), 한국문화산업학회.
- 데이비드 스노든(2011), 유은실 역, 『우아한 노년』, 사이언스북스.
- 레프 톨스토이(2015), 유상우 역, 『톨스토이 인생론』, 홍신문화사.
- 루이즈 애런슨(2020), 최가영 역, 『나이들에 관하여』, Being.
- 마르틴 하이데거(2020), 김재철 역, 『빌헬름 딜타이의 탐구작업과 역사적 세계관』, 누멘.
- 마크 앵스타인(2006), 전현수·김성철 역, 『붓다의 심리학—명상의 정신치료적 작용』, 홍신문화사.
- 문재원 외(2017),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 박선아(2009), 「자서전, 역사소설, 미시사, 그 경계를 넘어서」, 『불어불문학연구』 80, 한국불어불문학회, p. 208.
- 빌헬름 딜타이(2009), 송석량 역, 『정신과학 입문』, 지만지.
- 서우석(2014), 「도시인문학의 등장—학문적 담론과 실천」, 『도시인문학연구』 6(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p. 39.

- 안외순 외(2021), 『당진학』, 모시는 사람들.
- 에덤 샌델(2015), 이재석 역, 『편견이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 양은아(2009), 「대중인문학교실 참여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경험적 변화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 15(4), 한국평생교육학회.
- 얼 쇼리스(2010), 고병헌·이병곤·임정아 역, 『희망의 인문학—클레멘트 코스 기적을 만든다』, 이매진.
- 윌리엄 제임스(2005),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 유범상(2014), 『필링의 인문학』. 논형.
- 이명수(2010),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인문학적 공간—로컬리티로지 도달에 관한 동양학적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 48-51.
- 이명호(1996), 「City Identity를 통한 지방 정부의 이미지 상승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연구』 4,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 이상봉(2009),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의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 46-61.
- 이윤정(2001), 「문화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청소년 문화포럼』 4,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p. 149.
- 이정희·권기현(2018),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책설계·리더십·자원·네트워크 요인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3), 국정관리연구학회.
- 이-푸 투안(2020),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 정창우·손경원·박영하(2015),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46,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 25.
- 제프 말파스(2014),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 조광제(2008), 『의식의 85가지 얼굴』, 글항아리.
- 조운제(2021),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21세기 북스.
- 채영희(2018), 「인문도시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 의사소통 교육 가능성 모색」,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6, 한국사고와표현학회, p. 53.
- 최상욱(2019), 『하이데거 vs 레비나스』, 세창출판사.
- 최신한(2003), 『슬라이어 마허—감동과 대화의 사상가』, 살림.
- 최옥채(2004),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학현사.

한나 아렌트(2014), 이진우·태종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허정애(2014), 「“근대路 열린 인문학”: 기억과 재생의 인문도시 대구 중구」,  
『동서인문』 2,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원고 접수일: 2021년 7월 23일

심사 완료일: 2021년 8월 4일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4일

ABSTRACT

---

## A Study on the Utility of Humanities Program Conducted in Farming Areas

Kim, Seong-lee\*

This study looks at how humanities programs can bring about changes to local people in farming areas where it is not easy to meet the humanities. If the urban-centered humanities craze is approached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humanities, the study of life, will create new discrimination, and humanities will no longer exist in certain areas, but only in one or more area. The study begins with this recognition of problems, but was conducted only in one region, and only for local people who participated in humanities programs, not the entire community.

Firstl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focusing on humanities courses for farming area residents was examined. Local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humanities course found the utility of humanities in recognizing the ambiguous space of the region as their own place, feeling proud of the region's history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y acquired from the humanities course. Secondly, this study looked at the process of conducting humanities programs through poetry reading to elderly people who are relatively marginalized in farming areas. As a result,

---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imit to the utility of the humanities program in the elderly generation in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nly one farming area,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humanistic horizon as a practice on how humanities should move and the approach that the humanities should adopt in areas where humanities are alienated. In addition, ho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ities that have emerged in the face of civilization changes, such as COVID-19, should also be considered.

